

협회소식

협회장동정



- ▷ 12월 1일: 낙농기술지원센터에서 제27회 우수농장의 날 행사(주최: 한국낙농경영인회, 안성 한경대학교)
- ▷ 12월 5일~12일: 권역별

유우균검정농가 순회교육

▷ 12월 8일~ 9일: 2005한우회원농가교육 및

제8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결과보고

▷ 12월 16일 : 제4회 이사회

▷ 12월 20일: 한우핵군육종연구 현장평가회(전북정읍)

▷ 12월 23일: 국내사료사업발전방향 회의

인사발령

본 협회의 직원 인사발령이 12월 1일자로

구분	소속	성명	내용
전보	한우개량부	이종헌	사무국장직무대리/기획행정부장겸직
	전라북도지부	정승곤	홍보개발부장직무대리
	한우개량부	정용호	한우개량부장직무대리
	종돈개량부	김윤식	전라북도지부장
	홍보개발부	신재영	경상북도지부장
승진, 전보	기획행정부	장현기	종돈개량부장(1급)
승진	경상남도지부	신철교	경상남도지부장(1급)
	전라남도지부	손영석	전라남도지부장(2급)
	한우개량부	이길환	한우개량부검정팀장(3급)
	홍보개발부	문효식	홍보개발부혈통관리팀장(3급)
승진, 전보	유우개량부	김병숙	유우개량부검정팀장(3급)
승진	기획행정부	김승철	기획행정부행정팀장(3급)
승진, 전보	홍보개발부	박상출	유우개량부등록팀장(4급)
승진	유우개량부	김일량	유우개량부등록팀과장(4급)
	한우개량부	김연상	한우개량부심사팀과장(4급)
	전라북도지부	고동균	과장대리(5급)
승진, 전보	한우개량부	윤성수	한우개량부검정팀과장대리(5급)
전보	유우개량부	엄형정	홍보개발부혈통관리팀근무
		김준수	유우개량부등록팀근무
		김준호	유우개량부심사팀근무
		최명현	유우개량부검정팀근무
		최경미	유우개량부검정팀근무
		조명문	유우개량부등록팀근무
	한우개량부	박혜영	한우개량부등록팀근무
		구양모	한우개량부심사팀근무
		신승규	한우개량부등록팀근무
		송영준	한우개량부등록팀근무



실시되었다.

이사회 개최



본회는 12월 16일 본회 회의실에서 2005년 제 4회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보고사항으로는 회원가입, 사업추진현황보고, 제 8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결과보고, 2005년도 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 및 전시회보고, 일본축산 연수시찰 보고, 2005한국홀스타인 품평회 개최보고, 종돈수출을 위한 태국 현지 세미나 개최보고, 직원 인사발령 보고 순으로 진행,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부의 안건으로는 여비규정 개정의 건, 자산취득 승인, 결산을 위한 회계별 항목간 예산내역 변경 회장 선결 후 이사회 승인 건, 인사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에 관하여 토의 후 의결되었다.

업계소식

◆ 2005 한우지도자대회 개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있을 수 없다”

전국의 한우지도자들은 지난 7일 충북 제천 소재 청풍리조트에서 한우인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한우지도자대회’를 갖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논의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가 주최한 이날 대회에서 한우지도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추진은 미국의 통상 압력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을 규탄한다”며,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미국산 수입재개 반대운동을 소비자들과 함께 적극 추진키로 결의했다.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절대 안 된다”진명호 대의원(익산)의 결의문



개 회 사(남호경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지도자들은 또 미국산 수입재개에 앞서 정부의 한우산업 발전 청사진 제시를 요구하고, 특히 쇠고기 수입관세가 한우산업 발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목적세 입법화를 주장했다.

남호경 한우협회장은 이날 지도자들의 결의문 채택에 앞선 인사말을 통해 “한우산업의 크나큰 과제중의 하나였던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 입법이 관철되기까지 협력을 아끼지 않은 정부 국회 등 요로의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와 관련, 안전성 보장을 거듭 요구하는 한편 정부의 한우산업 장기적 발전방안 우선 제시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도자 대회에 이어 내년도 한우자조금사업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1백22억4천만원 규모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 한우협회 성명, 대정부 투쟁 ‘목소리’ 소비자 80% 수입재개 반대

미국산쇠고기의 수입재개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한우협회를 비롯한 생산자 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들 역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산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해 소비자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2005년 12월 19일은 쌀 협상 비준에 이은 또 하나의 치욕적인 날, 미국의 쇠고기 재수입 요구에 우리 정부가 백기를 든 날”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협회는 또한 19일 정부가 밝힌 미산 쇠고기기에 대해 국제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 이에 앞서 열린 가축방역협의회에서 모아진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된 다음 수입재개를 논의하자”는 의견을 무시한 것이며 “2차례의 가축방역협의회는 미산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보여주기에 불과한 행사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회는 이번 수입재개 결정에 대해 쌀 협상 비준과 함께 국익만을 우선으로 한 한국농업발전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 소비자 연맹은 미산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한 소비자의식조사결과 80%가 재수입에 반대하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아 주목 받고 있다.

전국 8대 도시(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강원, 전남)에서 1천5백31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들은 가장 큰 반대이유로 BSE에 대한 불안감(56%)을 꼽아 여전히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소비자에게 깊이 인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 미산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되더라도 절대 구입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54.4%, 신중히 생각해 구입하겠다는 답변이 36.7%인 것에 반해 상관없이 구입하겠다는 소비자는 8.9%에 불과했다.

한편, 같은 날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생산자 단체에서도 잇따라 미산쇠고기 수입재개결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 **홍천 늘푸름한우 서울전문판매점 지정 본격 공략**

홍천을 대표하는 브랜드 홍천늘푸름 한우가 서울 시장을 공략한다.

홍천늘푸름한우(회장 변경현)는 지난 20일 동작구 흑석동 54-143에서 변경현 회장, 최부규 한우협회이사, 사청환 홍천축협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늘푸름한우 전문판매점 지정식을 가졌다. 늘푸름한우는 이번 전문판매점 지정을 시작으로 서울 주요 지역에 지정판매점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홍천늘푸름한우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브랜드 경매행사를 실시하며 주목받았으나 소매단계 판매가 부진이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 지정판매점이 홍천늘푸름한우의 소비층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 **‘한우’ 책자발간 · 집필자와의 만남**

한국동물자원과학회 한우연구회(회장 이문연)는 지난 20일 농협 안성연수원에서 ‘한우’ 책자발간 및 집필자와의 만남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 책에서 한우의 행동부문을 집필한



한우 발간기념사
(이문연 한국동물자원과학회 한우연구회장)

농협사료 원유석 전무, 한우번식우관리부문을 집필한 축산연구소 강수원 박사, 한우사양관리 부문을 집필한 충북대 송만강 교수가 참석해 이번 발간한 책에 대해 설명하고 농가들의 질문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했다.

◆ **한국 유기축산 정착방안 세미나 개최**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윤상기 소장)와 한국 유기축산연구회(강창원 회장)는 지난 19(월), 건국대학교(서울)에서 우리나라의 친환경 유기축산물 생산기술의 발전과 유기축산 실천농가가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기술정보를 공유하고자 ‘한국 유기축산 정착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 **농림부-한우개량 핵심 육종농가제 도입**

내년부터 한우 개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육종농가제도가 도입된다.

농림부는 그동안 한우개량을 수소 위주로 우수 보증씨수소를 선발해 인공수정용 정액을 생산, 한우농가에 보급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씨수소를 생산하는 어미 암소도 함께 유전능력을 평가, 개량에 반영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처럼 어미 암소도 개량에 반영하게 되면 개량 성과가 지금보다 2배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 규모화된 우수 번식 농가 10호를 육종농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앞으로 농협가축개량사업소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 혈통등록(혈통·고등등록우)이 된 암소 50두 내외를 사육하는 번식농가 중에서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매년

10호씩 40호를 선발하게 된다.

농림부는 이들 농가에서 발육성과 육질 등 유전 능력이 뛰어난 암소 4천두를 선정, 보증씨수소와 교배시켜 우량 씨수송아지(당대검정우)로 생산·검정함으로써 유전능력이 우수한 한우 보증씨수소를 연간 20두씩 선발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한우 육종농가 사업에 참여한 암소와 생산 송아지의 질병검사, 발육조사, 혈통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마리당 연간 10만원을 지급하고, 참여 농가에 체중 측정 장비도 지원키로 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육종농가들이 등록 암소 관리와 송아지 생산에 투입되는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보증씨수소를 생산한 농가에 그 보증씨수소에서 생산된 정액판매액의 10%(두당 평균 3천~4천만원)를 개량장려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올해 선정된 한우 육종농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경기 가평 정규연 △강원 홍천 이진영 △충북 진천 전철호 △전북 정읍 이경연 △전북 임실 김맹기 △전북 임실 이정일 △경북 울진 김용석 △경북 김천 장선복 △경남 거창 최중훈 △경남 밀양 윤무영

◆ 축산물등급판정소-등급판정결과

성적우수농가 표창 및 사례발표세미나 개최

2005년 한우고급육 생산 최우수농가로 전북 김제 이영환씨가 선정됐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는 지난 15일 대회의실에서 1년 동안의 등급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고급육 생산 성적이 높은 농가에 대한 표창과 함께 생산 사례발표 세미나를 개최했다.

표창은 한우와 돼지부문으로 나누어 한우부문에서는 최우수에 이영환씨, 우수에는 강원도 횡성의 김영래씨가 선정되었으며, 돼지부문은 최우수에 경북 의성의 최상식(윤문석, 이영호 공동생산), 우수에는 전남 함평의 한석봉씨가 각각 선정됐다.

이 날 한우부문에서 최우수 고급육 생산농가로 선정된 이영환씨는 한우거세우를 2004.10월부터 2005.9월까지 34두를 출하하여 육질 1+등급이상 76.5% (1++등급 44.1%)에 육량 A등급이 76.5%로 나타났고, 우수 고급육 생산농가로 선정된 김영래씨는 출하두수 39두중 육질 1+등급이상 출현율은 76.9%(1++등급 51.3%), 육량 A등급은 38.5%인 것으로 조사됐다. 돼지부문에서 최우수 고급육 생산농가로 선정된 최상식씨는 한해 동안 총 4천3백67두를 출하하여 A등급 출현율이 69.3%(A·B등급 91.6%), 우수 고급육 생산농가인 한석봉씨는 2천8백39두를 출하하여 A등급 출현율 71.3%(A·B등급 90.7%)의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영환씨는 수상소감을 통해 “장기적으로 꾸준히 개량을 실행하고 김제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총체보리 TMR 사료를 프로그램에 맞춰 급여한 결과 오늘과 같은 결과가 있었다”며 “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주위에서 적극 도와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뤄낸 성과이기에 더 값지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정읍시 ‘局단위’ 축산진흥센터 설치

정읍시 축산소득이 1차산업 가운데 가장 높아지면서 정읍시가 축산조직을 확대, 전국 최초

로 국단위의 축산진흥센터를 설치, 축산부국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정읍시는 최근 행사부로부터 국단위 조직 설치를 인가받고, 축산진흥센터에 축산행정과와 축산기술과를 두기로 확정했다. 축산행정과에는 축산행정·대가축·중소가축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축산기술과에는 친환경축산·가축방역·축산유통 업무가 포함돼 있다.

정읍시는 이같이 축산조직을 확대 개편함에 따라 축산발전 사업 목표도 이에 걸맞게 의욕적으로 세워놓고 있다.

정읍시의 축산발전 목표에 따르면 한우 번식농가와 비육농가를 조직화하고 체계적으로 생산토록 하는 한편 한우 종자개량과 번식기반 확보로 고품질 한우고기를 생산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송아지생산과 비육, 유통의 일관사육체계를 구축하고, 한우송아지 생산기지도 더욱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읍단풍미인 한우 명품브랜드육을 생산, 생산된 한우고기를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브랜드육 전문판매점도 함께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직판장·전자상거래 등 소비자와 생산자간 직거래체제를 구축, 축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축산업 육성과 함께 휴양형·체험형 그린목장도 육성하고, 광활한 초원조성과 한우홍보전시관 설치, 축산테마파크 조성 등 축산관광레저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2008년 전면 시행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비,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오는 2008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때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박홍수 농림부 장관(WTO/DDA 각료회의 참석차 홍콩 출국)을 대신해서 참석한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오는 2007년 1월부터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 실시와 함께 우수브랜드 육성 등 한우고기 차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또 남은 논·밭을 활용한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한우 개량 등을 통한 생산성을 향상시킬 계획도 말했다.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한우국밥 나눔 행사

한우농가들이 조성한 자조금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뜻 깊은 행사가 열려 주목받고 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남호경)는 겨울철을 맞아 도시 저소득층에게 따뜻한 한우국밥을 나눠주는 '한우국밥 나눔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열린 제2회 김밥사랑 짝찬사랑 콘서트의 수익금과 한우자조금으로 겨울철 도시 소외계층을 돕는 행사여서 그 의미를 더했다.

광주광역시 양동마을에서 열린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첫 번째 국밥나눔 활동에는 의

료·미용봉사활동을 함께 펼쳐 몸과 마음이 얼어붙은 우리 이웃들을 위로했다.

행사관계자는 “농가들이 직접 모은 한우자조금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뜻 깊은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농가들의 자부심은 한층 높아지고 소비자들이 우리 한우를 한층 더 가깝고 친근하게 생각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리위는 내년 1월까지 부산, 서울, 대구 등의 광역시에서 차례로 한우국밥 나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 한우심포지엄 개최-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전국한우협동조합협의회(회장 이재학)는 지난 6일 대전 사또그레이크호텔에서 한우자조금 대의원을 비롯한 4백여 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브랜드 시대에 맞는 한우산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우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재학 회장은 “한우조합은 갈수록 거세지는 축산물 수입개방 압력 속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조합원 중심의 조합으로 거듭나자”며 “오늘 세미나가 한우인의 지혜를 모아 한우산업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조합사업을 전이용 하기로 새롭게 결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에서 김주수 전 농림부차관(경북대 초빙교수)은 주제발표를 통해 중앙정부는 종축개량·사육기반·안전성·위생검역 등을 확보하고 지방정부는 지역단위 조합과 연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브랜드 육성, 협동조합은 수급관리·사양관리·마케팅 등의 역할분담론을 제시했다.

한우조합설립이후 가장 큰 행사라는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에서 400여명의 한우인이 참석해 브랜드와 고급육생산에 대한 한우인의 열기를 보여주었다.

◆ 함평축협-2005년도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사업 평가대회 개최

함평축협(조합장 안병호)은 지난 9일 조합 회의실에서 전남도청 안병선 축산계장, 김재철 농협전남지역본부 부분부장, 신훈 농협나주축산물공판장장을 비롯해 한우사육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사업 평가대회’를 가졌다.

이날 평가대회에서 안병호 조합장은 “함평천지한우 셀-비프만을 그동안의 결과를 토대로 성숙한 명품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대외적으로는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내적으로는 지역 한우사육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평가대회에서는 김영주 브랜드사업단장의 2005년도 브랜드사업 추진경과 및 평가보고가 있었으며 정희종 교수(전남대 식품공학과)의 셀-비프 기능성 연구발표가 이어졌다.

함평천지한우는 지난 2004년 전남도로부터 한우명품브랜드육성사업 대상자로 지정받아 오는 2006년까지 매년 전남도에서 1억원, 함평군에서 1억원을 지원받고 조합자체자금 5천만원을 출연하여 브랜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05년 우수농축산물대전에서 바이어가 선정한 우수브랜드 최우수상과 2005년 축

산물브랜드컨설팅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컨설팅을 받았다.

또한 2006년도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 홍성낙협-2005년조합사업 전이용대회 개최,

홍성낙협(조합장 이영호)은 지난 13일 덕산스파피아에서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2005년 조합사업 전이용대회를 개최, 조합원간의 화합과 일체감을 다지는 한편 홍성낙협 조합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조합사업을 전이용해서 낙농업을 주도하는 조합을 만드는데 동참하기로 결의하는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영호 조합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전개되는 일련의 낙농현안으로 낙농 어려움 속에 있으나 이런 때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낙농인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조합은 조합원의 사랑과 관심속에 과거 10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자산1천억 돌파를 비롯해 모범적인 낙농조합으로 정착하며 홍성낙협의 위상을 전국에 확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달식에서 황인경 학생 등 10명의 대학생에게 각각 1백만원씩 장학금이 전달되고 특별강사로 홍성출신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윤방부 교수를 초청, 낙농인과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웰빙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소개했다.

◆ 가평축협 8대 조합장에 나종국씨 선출

가평축협 8대 조합장 선거에서 나종국(48) 후보가 선출됐다. 나종국 당선자는 가평축협 감

사, 가평군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가평군 하면에서 1천여두의 돼지를 사육하는 양축인이다

◆ 수원축협_우수농장 인증서 전달 및 축산컨설팅 사례발표회 개최

2010퍼스트협동조합 모델 구현을 표방하고 있는 수원축협(조합장 우용식)이 지난 12일 조합회의실에서 우수농장 인증서 전달 및 축산컨설팅 사례발표회를 가졌다.

수원축협은 매년 조합이 실시하고 있는 컨설팅 농장들중 성적이 우수한 농장을 발굴해 우수농장 인증서를 전달하고 농장 입간판을 설치해 수원축협 조합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다.

조합은 일반농가, 집중관리농가, 선도관리농가로 구분, 농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일정수준 이상이 되었을 때 선도 및 우수농가로 인증하는 제도를 지난 2004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수원축협은 이날 중권목장과 대경목장에 대한 인증서를 전달하고 이들 농장에 대한 컨설팅 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우용식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합에서 두 번째로 실시하고 있는 농장의 날 행사는 지역에서 다른 조합원의 모범이 될 수 있고 선도적으로 지역 축산을 이끌 수 있는 농가에 대해 인증서 전달과 축산컨설팅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다른 조합원들도 이들 농장들처럼 컨설팅을 통해 소득증대를 높이고자 우수농장의 날 행사를 갖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권목장과 대경목장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오용권, 김휘윤컨설턴트의 2곳목장에 대한 컨설팅 사례발표와 함께 이들 컨설팅

트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발로 뛰는 서울대 김현진박사의 특강이 이어졌다.

김 박사는 “낙농은 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므로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을 생산하는 목장만 살아남을 수 있고 우유가 위생조건이 가장 까다로울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 축산은 세계적인 글로벌 표준에 맞는 위생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컨설팅의 경우도 사양관리 컨설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컨설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흥천축협, 서석농협마트에 판매장 개장

흥천축협(조합장 홍병천)이 ‘늘푸른 한우’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관내 서석농협 하나로마트에 축산물판매장을 개장했다. 흥천축협은 서석농협과 이 매장에서는 ‘늘푸른 한우’만을 판매키로 조인했다.

흥천축협은 서석농협이 새로 개장한 하나로마트에 축산물 전문판매장을 개장하면서 농협과 축협이 양축조합원들이 생산한 축산물을 팔아주기 위한 상생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양축조합원들은 그동안 지역 내에서 농협과 축협이 서로 다른 축산물판매장을 운영하면서 과다경쟁으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점이 이번 조인을 계기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

홍병천 조합장은 “농·축협중앙회가 통합된 지 벌써 6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동안 지역에서는 농협과 축협이 같은 사업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서석농협 하나로마트에 흥천축협 축산물판매장을 개장하

면서 농협과 축협이 하나 되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흥 조합장은 또 “축산물 판매장은 전문조직인 축협이 맡아 운영하는 것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흥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농협 하나로마트 정육코너에는 해당 지역의 축협들이 축산물을 관리, 판매하는 것이 농·축협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중앙진테크 미국 ABS 사의 낙농 관리 소식지 발간 예정

젖소 정액 및 낙농 기자재 전문 취급사인(주)중앙진테크에서는 해외 유수의 기업들과의 거래에서 취득되는 최신 낙농 기술 자료집을 2006년부터 도입 발책하여, 한국 낙농가에게 번역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본 번역판은 소식지 형태로 제공될 것이며, 특히, 미국의 젖소 정액 생산 회사이며, 우수한 번식관리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ABS 사의 소식을 인용, 주된 내용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인공 수정 세계 최초 도입의 신기원을 이뤘던, 프랑스 IMV 사 등의 기술 번역집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 처음 시도로 12월에는 유방염이 번식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한다고 하며, 본문 내용은 중앙진테크 홈페이지를 통해 접할 수 있다고 한다.

자세한 본문 내용이나, 자료를 받고자 하는 분은 (주)중앙진테크 (02) 587-1388 이나, 각 지역 지소장에게 문의하면 된다.

www.jagenetec.co.kr 02)587-1388

해외소식

▷베트남, 수입 브랜드에 국내산 유아용 분유 고전

베트남에서 '01년 정한 낙농진흥계획에 따라 원유생산량은 늘고 있지만 대도시에서 유제품 특히 유아용 분유 소비는 수입산에 밀려 자국산 제품이 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아용분유 1kg 캔 포장가격은 자국산 제품이 5,100원에서 7,300원 수준인 것에 비해 수입품은 1만원에서 1만4천원 수준이나 수입품이 국산품에 비해 고품질이고 특히 고소득층이나 아이가 한 명밖에 없는 가정에서는 수입 제품을 구입 경향이 높아 국산제품의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유제품은 30%의 관세 외에 10%의 수입 소비세를 부담하고 있다.

▷美 소비자 “복제가축 고기 구입하겠다”

복제가축 생산물에 우호적, 질병면역력 보존에 긍정적 반응 보여미국의 우유·육류 소비자 3명중 2명이 복제가축 및 그 자손들을 이용해 생산한 우유와 육류에 대해 우호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KRC 조사기관에서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응답자의 1/3은 복제가축의 우유와 육류 구입의사가 있다고 답했고, 다른 1/3은 더 알아보고 구입, 나머지 1/3은 구입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들 대부분은 복제 가축의 경우 가축위생 증진, 가축생산물의 영양개선, 질병에 대한 면역력 보존, 희귀 품종 보존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뉴질랜드, 낙농부문에 먹구름

뉴질랜드 낙농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뉴질랜드의 대규모 유업회사 폰테라가 유고형분에 대한 낙농가 지불액을 킬로그램당 4.59달러로 하면서 낙농가는 만족하고 있지만, 농장전체의 수입은 1%감소(2005~2006년도)될 전망이다. 또한 토지이용 경합과 환경문제 등의 난제도 겹쳐있다. 낙농가의 총수입은 2004/05년도에 9% 상승했다.

기후가 좋지 않아 원유생산이 전 지역에서 4~10%정도 떨어졌지만, 유고형분에 대한 지불액이 향상됐기 때문이다.

한편 무역문제에서도 특히 아르헨티나가 값싼 유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데 불안을 느끼고 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교섭에서 무역량이 확대된 것도 자국에게 좋은 기회가 될지 어떨지 의문을 품고 있다. 낙농가 입장에서는 WTO보다 자유무역협정(FTA)에 관심이 많다. 특히 중국과의 교섭이 성립되면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세계최대 농업장비 전시회 내년 2월 개최

세계 최대 농업장비 및 기술박람회가 2006년 2월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툴레어시 국제농업센터에서 개최된다고 발표되었다. 올해로 39주년을 맞는 이 박람회는 전 세계 1천500여개 업체가 참여하며 2백50만제곱피트의 농업무역전시장을 활용할 예정이다. 낙농부분만 8만제곱피트를 차지하며 100여차례 이상의 각종 세미나가 동시에 개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미국, 교잡종 젖소 수정란 열대지방공급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은 베트남 국립생명공학연구소와 함께 열대지방에서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젖소를 생산하기 위해 도축되는 암소의 난자에 열대지방에 적응된 수소정액을 이용하여 체외수정란을 생산한 후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열대지방에서는 사육되는 젖소는 2년에 한번 정도 송아지를 낳고 생산되는 우유량도 송아지를 포유하는 정도로 적어 우유생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산된 교잡종 젖소들은 2세 이후 잡종강세 효과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지만 현재 교잡종 젖소를 생산하는데 300불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비해 수정란 생산방식 이용시 60불 정도에 불과하여 경제성 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뉴질랜드, 중국내 최대 분유업체 지분인수

세계 최대 유제품 수출업체인 뉴질랜드 폰테라사는 5년마다 두배씩 증가하는 중국내 유제품 시장의 유통망을 증대시키기 위해 중국 최대 분유제조업체인 시지아중산 그룹의 지분 43%를 미화1억7백만달러에 사는데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허베이성에 위치한 산루그룹은 분유외에도 중국내 액상유 시장의 5%, 요거트 시장의 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미 20년에 중국시장에 진출한 폰테라사는 이번 지분인수로 중국내 시장 확대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DDA농업협상, 관세감축·신축성 우선순위로 놓고 이견

DDA농업협상이 개발도상국가 우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접근 문제와 관련 WTO 회원국간에 관세감축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과 신축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WTO와 각국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에 열린 농업분야 그룹미팅에서 일부 국가는 관세감축이 신축성보다 우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국가들은 월드뱅크의 자료를 인용하며 관세감축이 개발도상국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반면 또 다른 국가들은 관세감축보다 신축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신축성이 개발도상국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일부 국가들은 관세감축과 신축성을 연계시켜 다뤄야 한다는 양측의 주장을 통합한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 민간회사 새로운 성 조절 정액 특허 획득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마이크로빅스 바이오 시스템이라는 민간회사가 새로운 성 조절 정액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미국과 유럽에 특허를 받았으며 오는 2008년부터 상업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기술은 기존의 성감별 정액이 정자를 하나하나 감별 분리하는데 비해 특정 성을 결정하는 정자끼리 응집하게 한 후 잔류정자를 제거하는 방식인데 성공률이 96%~98%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방식은 기존 분리방식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정자처리도 간단한 것으로 알려져 실용화 시 낙농가들에게 송아지 생산에 일대 변혁

을 줄 것으로 개발업체는 기대하고 있다.

▷일본, “우유 단백질 에이즈 억제한다”

모유나 우유에 들어 있는 단백질인 ‘락토퍼옥시다제(lactoperoxidase:LPO)’와 올리고당인 ‘시알릴 락토스(sialyl lactose:SL)’에 에이즈 바이러스(HIV-1)의 감염을 예방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과 그 작용 기전이 일본 연구진의 연구로 밝혀졌다.

유기농우유업에선 LPO와 SL은 치즈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형에서 다량 정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을 입수하기 어려운 나라나 지역 등에서 대체 소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덴마크, 야외에서 사육된 송아지가 증체율이 좋다.

우사에서 키운 송아지보다 야외에서 사육된 송아지가 증체율이 좋고 튼튼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덴마크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송아지를 2그룹으로 나누어 송아지 우사와 야외 송아지방에서 기르면서 8주까지 대용유를 급여하고 2-4주 사이에 그룹사양을 실시한 결과 야외에서 발육된 송아지들이 증체량이 좋고 설사병과 호흡기질환이 적어 더 건강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번 실험에서 11월에서 5월까지 추운 시기에는 사료 이용율이 약 20%정도 낮아 졌지만 이 경우에도 야외에 사육된 송아지의 사료 이용율이 훨씬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비유초 착유 증가가 유량을 증대시키지는 않는다.

비유초기 4회 착유 또는 6회 착유시 유량을 증대시킨다는 주장들이 있었으나 최근 실험에서 그렇지 않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미국 아리조나대학 연구진이 미국 낙농학회지 11월호에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300두의 젖소사육장을 5개 그룹으로 나누어 3그룹은 분만후 최초 7일, 14일, 21일까지 1일 6회 착유를 실시한 후 3회 착유를 실시하고, 4번째 그룹은 대조군으로 전유기 동안 1일 3회 착유를 실시하며, 모든 그룹에 비유 63일차에 성장호르몬을 투여하였다. 마지막 5번째 그룹은 21일차까지 6회 착유하였으나 호르몬을 투여하지 않고 사육한 결과를 각각 비교분석한 결과 비유초기 21일전까지 6회 착유한 모든 그룹이 더 많은 유량을 보이지 않았고 비유지속성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성장호르몬 투여그룹이 1일 4.6kg의 유량이 더 생산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호주, 낙농가에게 환경보존금 지원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정부가 낙농가들에게 환경보존을 위한 특별기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우선 주 관내 해안 및 고원지대 8개 낙농가에게 50만불이 지원되는 이번기금은 강변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방풍림을 식재하여 토양침식문제를 해결하고 낙농가 분뇨 방출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호주 주정부는 낙농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5년전부터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